



# 생각을 말해요

◆ 글을 읽고 까닭과 함께 나의 생각을 말해 봅시다.



그림을 보고 운동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봅시다.



##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

월요일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호진이는 평소처럼 승수와 운동장에서 놀기 위해 밥을 부지런히 먹었습니다. 역시 공을 1등으로 차지하여 운동장에 나갔습니다. 지현이도 오고, 뒤따라 서영이, 준원이도 왔습니다. 서로 공을 차기도 하고, 뺏기도 하며 정신없이 뛰어놀다 보니 종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허겁지겁 교실로 돌아오니 몇몇 친구들이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조금은 굳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운동장에서 일이 하나 있었네요. 우리 반의 공들은 누구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안전하게 가지고 놀아야겠지요. 그런데 오늘 누군가가 찬 공에 우리 반 친구가 등을 세게 맞았다고 하네요.”

“누구야?”

“아팠겠다.”

여기저기 웅성웅성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조용! 누가 그랬는지 찾을 일이 아니라 이 일을 우리 반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 여러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같이 회의를 해야겠네요.”

“네, 그렇지요. 점심시간의 공 사용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해 볼까요? 제일 먼저 손을 든 민준이 말해 보세요.”



“공을 발로 차면 공이 너무 세게 날아가 친구가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놀이는 손으로만 하고 발로 차며 노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맞장구를 치는 친구도 있고, 못마땅해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발로 차는 것은 금지하자는 이야기군요. 다음은 서영이가 말해 볼까요?”

“네, 일단 공을 가지고 놀게 되면 발로도 차게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 외에 점심시간에는 공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공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뜻이네요.”

그때 승수가 손을 번쩍 들며 일어나 말했습니다.

“공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해요!”

“승수는 까닭을 들어서 생각을 말해 보세요.”

“공을 손으로만 주고받는 놀이는 시시하고 재미가 별로 없으니 공을 발로 차며 노는 것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서는 계속해서 다른 친구들의 생각도 말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1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월요일 점심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2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을 해결하기 위해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은 무엇인가요?

2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 속 인물들의 생각과 그 까닭을 정리해 봅시다.

	생각	까닭
민준	공놀이는 손으로만 하고 발로 차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공을 발로 차면 공이 너무 세게 날아가 친구가 다칠 수도 있어서
서영		
승수		

3 글을 읽고 '나'라면 어떤 말을 하겠는지 생각과 까닭을 써 봅시다.

---



---



---

4 이어질 낱말을 생각하며 끝말잇기 놀이를 해 봅시다.



5 그림의 장면을 보고 나의 생각을 친구와 이야기해 봅시다.



**배움 다지기**

- 글을 읽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았나요?
- 글을 읽고 까닭과 함께 나의 생각을 말해 보았나요?

